



축산물품질평가원 9번째 독립사무실

# 경기지원 신청사 개청식

고객홍보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전국 지역별로 10개의 지원이 있다. 그중 9개의 지원이 독립사무실을 갖추고 있다. 지난 6월 15일 9번째로 경기지원 독립사무실 개청식을 개최하였다. 경기도 협신식품 축산물공판장 내에 지원사무실이 있었으나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하여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원시(이의동) 광교에 첫 독립청사 시대를 개막하여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경기지원 사무실은  
축산농가들이 필요시  
언제든지 개방하여  
축산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잠시 경기지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경기支원은 등급판정 업무가 본격화되기 이전이었던 1992년, 안양시 소재 협신식품에서 시범사업으로 등급판정 업무를 시작하였다. 경기출장소, 경기지소(승격)를 거쳐 기관 명칭이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변경된 2010년부터 축평원 경기지원으로 경기도 내 축산물 품질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도내 관할 축산물 작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교류하기 위해 오랜 현장사무실 시대를 뒤로하고 이번에 독립 청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청식에는 백종호 원장·유무상 경기지원장을 비롯한 축평원 임직원, 염태영 수원시장, 유관기관·축산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신청사 개청식 및 헌판 제막식을 개최하며 축하해 주었다. 현재 경기支원은 지원직할 사무소와 3개 출장소에서 31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 소·돼지 품질평가 사업장, 계란·닭고기 사업장, 꿀 검사기관까지 총 24개 사업장에서 품질평가 업무 및 축산물이력제 사업, 축산물 유통조사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마련된 경기지원 사무실은 청사 개원을 기반으로 국내산 축산물 품질향상 및 축산농가에 대한 서비스·컨설팅 강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통정보 제공 등 축산농가들이 필요시 언제든지 개방하여 축산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축평원의 백종호원장은 “대구·경북 지역부터 독립 청사를 운영하기 시작해 경기지원이 9번째로 독립청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경기지원을 축산물 유통 거점으로 변화·발전시키고 올바른 식육문화 정착과 함께 도내 브랜드 한우 사업, 계란 등급사업 등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경기지원은 국내산 축산물을 과학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서비스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며 더욱더 폭넓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기지원은 신청사가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수도권외의 축산물 생산 및 원활한 유통 등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